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한국 정착 여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상관관계 연구

이다솜(동국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4학년 2학기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자신의 본국, 그리고 여타 제3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이동의 연쇄 관계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이라는 기회와 외국인이라는 제약 사이에서 귀환, 정착, 도약 등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학생들이 출신국의 노동환경, 유학 목적국의 비자 정책, 결혼이나 육아 등 유학생 개인의 가족관계망 등 다양한 이유로 졸업 후 공간적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규명해왔다(Wu and Wilkes, 2017; Geddie 2013; Alberts and Hazen, 2005). 다시 말해 유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적, 사회적, 개인적 이유로 본국으로의 귀환이나, 유학지 체류냐 혹은 새로운 국가로의 재이주냐를 결정한다는 말이다(Alberts and Hazen 2005). 지난 20여년간 외국인 학생, 노동자,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글로벌 교육 위계질서 상의 지위 변동 속에서 한국은 단지 학위 취득을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장소에서 더 높은 지위를 향한 발판이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한 장소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3년까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GKS)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우수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등을 토대로 2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표명했다(권오영, 2020). 그러나 유학생을 유치 중일 뿐, 대학 정원을 충당하여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 창출과 국제 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홍수·이상직, 2019). 입학 후 유학생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바트첵게르 투멩렘베렐·김도혜, 2020) 부적응 문제와 시간제 불법 취업에만 치중하여 학업에 소홀하고 졸업이 지연되거나 학교를 이탈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중섭, 2020; 이승환, 2020; 주영민, 2020).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유학생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유학생들의 한국 학교 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분석이었기에,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장학금과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그리고 유학생 등록금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의 목적 속에서 이들 유학생들은 언제나 환대받는 손님들로만 묘사되었다. 여기에는 이 유학생들이 결국 ‘손님’으로서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전제가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생활 적응의 부담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인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더욱 큰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Dao et al.,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일컫는데(Berry, 2003)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 및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t al., 2012; Hwang & Ting, 2008; Williams & Berry, 1991). 이처럼 새로운 문화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건강은 손상될 수 있는데(Wei et al., 2007), 이들의 고유문화와 주류문화인 한국 문화 속에서의 효율적인 대처기술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보호요인 역할을 한다(Wei et al., 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들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문화인 한국문화를 동시에 접하며 살아간다. 이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대학 졸업 후 한국 정착 여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관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한국 정착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한국 정착 여부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정착을 택한 학생들과 그 외의 선택지를 택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한국정착 여부 결정을 달리한 두 집단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가설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울증상도 심할 것이다.

(가설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학생들보다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이론

문화변용(acculturation) 또는 문화적응(adaptation)의 개념은¹ 문화 간 접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에서 탄생하였다. 이는 문화접촉 상황 초기에 나타나는 집단수준의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문화변용은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집단 중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erry, 1990).

문화변용의 초기 연구는 미국에 이주한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이 이민자를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Furnham & Bochner, 1986).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이민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민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천착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Ward et al, 2001).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이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기체에 대한 고려의 부재와 문화변용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한 적절성을 간과하고 있었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새롭게 조명된 이주민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이민자 집단의 병리 수준이 수용국의 주민보다 낮거나(Lasry, 1977) 현지인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Brewinm, 1980; Kim, 1984).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타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변용을 학습경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즉 문화적 적응을 위한 개입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닌 준비, 오리엔테이션, 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라는 것이다(Furnham & Bochner, 1982; Klineberg, 1982). 이는 이민자가 수용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적 측면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의 태도나 감정, 그리고 예절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과 대인 간 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주민이나 유학생 또는 난민이 수용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적응(adaptation)이란 새로운 문화 환경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1 개인별 이주민의 문화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문화변용(acculturation) 또는 문화적응(adaptation)을 쓰는데 이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정립되지 않은 용어이다(김효정, 2009). 예를 들면 베리의 문화적응 척도를 나타내는 모델을 정진경, 양계민(2004)은 문화적으로 윤인진(2004)은 문화변용으로 각각 표현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접변, 문화변이, 문화동화 등이 쓰이기도 한다.

보았다(Argyle, 1969). 문화학습(Culture learning) 접근에서는 의사소통의 맥락 정도와 상호 간의 에티켓에 대한 문제를 중심의제로 다루었는데 이는 문화충격(cultural shock)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화변용을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문화적 접촉의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전자는 문화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수용국의 현지문화를 일방적으로 습득하여 동화한다는 의미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후자는 문화적 접촉에 관한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문화의 지식적 측면을 습득하는 것은 좋지만 학습한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시키면서 발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Furnhan & Bochner, 1982). 이러한 문화학습의 이론적 접근은 문화변용을 일방적 적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이 이론의 경계선을 넘어서 두 문화 간의 유연하고 원활한 접촉행동을 적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학습이론이 적응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문화적 적응에 있어 사회적 기술의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라면 스트레스 대처(stress and coping) 접근은 적응의 정서적인 측면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문화 간의 이동을 스트레스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접근에 관한 Lazarus와 Folkman(1984)의 영향을 받은 이 연구들은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나 외향성, 모호함에 대한 인내, 통제 신념의 위치와 같은 성격의 특징, 대처방식, 향수병, 그리고 결혼 여부, 출신국과 이입국과의 관계와 같은 요인 이외에도 성이나 인종, 직장의 유무에 관한 변인들을 고려하였다. 이민자의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사건의 의미에 관한 이민자의 인지적 평가와 변화에 적응하는 대처전략의 선택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는 스트레스 대처 접근은 문화 간 접촉과 변화가 사회 정치적·경제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민자는 출신국과 수용국 두 사회의 특성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변용에 관한 스트레스 접근 연구는 일차적 대처와 이차적 대처로 나눌 수 있다. 일차적 대처는 자신에게 환경을 맞추는 것이고 이차적 대처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Lazarus, Folkman 1984).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가에 관한 연구(Ward, Leong & Kennedy, 1998)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대처 방법 그리고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차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체류자들이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이차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타 문화변용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기타 변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지, 문화변용의 방식, 대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소유 여부, 그리고 문화적 변용을 하게 되는 위치 및 인구학적 변인들이

있다.

스트레스는 대처 접근의 측면에서 살펴 본 문화변용은 문화학습 이론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스트레스 대처 접근 방식은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환경에 관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 대처 접근이 문화변용 과정의 부정적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변용의 부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통합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적응의 정의

문화적응은 두 개 이상의 문화 집단과 집단의 일원이 접촉한 결과로 발생하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변화 과정이다. 문화 집단의 수준에서 문화적응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그리고 문화 규범에서 생기는 변화와 관련된다(Redfield et al., 1936).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 문화적응은 음식과 의복, 언어,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행동 범주에서 생기는 변화와 이러한 간문화적 만남에서 생기는 적응과 관련된다(Thurnwald, 1932). 문화적응은 접촉하는 모든 집단과 개인에게 해당 변화가 발생하는 상호적인 과정이다. 이 개념은 또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어서(Rudmin, 2009) 정의가 대단히 다양하다(Ward, 2001).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응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광범위하게 인용되어 왔고 이 분야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첫째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에 들어갈 때 집단 가운데 하나 또는 모두의 원래 문화 양상에서 생기는 후속적인 변화와 함께 초래되는 현상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문화변용은 문화 변화의 단지 한 측면이어서 문화 변화와 구별되고, 때로는 문화변용의 한 국면인 동화वाद도 구별된다(Redfield et al., 1936, pp. 149-150).

또 다른 정의에서 문화적응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문화변화 두 개 이상의 자율적인 문화 체계의 접촉으로 개시된다. 문화적응적인 변화는 직접적인 문화 전달의 결과일 수도 있고, 침범하는 문화가 유발한 생태적이거나 인구상의 변화와 같은 비문화적인 원인에서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적응적인 변화는 이방인의 특색이나 양상의 수용에 따른 내부적 조정으로 지연될 수도 있고, 또는 전통적 생활양식의 반동적인 적응일 수도 있다(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54, p. 974).

첫 번째 정의에서 문화적응은 더 넓은 문화 변화 개념의 한 측면(간문화적 접촉으로 초래되는 문화 변화의 한 측면)으로 여겨지고, ‘하나 또는 모든 집단’에

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화와 구별된다. 이것은 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차별화이다. 두 번째 정의에서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추가되었다. 변화는 간접적일 수 있고(서식지의 변화이므로 문화적이지는 않지만 ‘생태적인’), 지연될 수 있고(접촉 이후에 오랜 기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화적 지체와 심리적 지체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반동적일 수 있다(예컨대 집단과 개인은 ‘외부의’ 문화적 영향을 거부하고, 지배적인 문화와 더 유사한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기 보다 더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레이브스(Graves, 1967)는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문화-접촉 상황에 참여하는 개인의 변화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은 외부 문화와 그가 속한 문화의 변화 모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종류는 정체성이나 가치, 태도 또는 행동일 수도 있다. 간문화적 접촉의 결과로 집단과 개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려면 문화적응의 문화적·심리적 수준 모두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수준의 관계는 분명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집단의 문화적 변화는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즉 심리적 변화의 결과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둘째, 모든 개인이 같은 방식으로 문화적응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동일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개인은 같은 동기를 가지거나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상이한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의 문화적 특징과 심리적 특징 간에 단순한 관계는 없다. 모든 집단과 모든 개인은 같은 방식으로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동일한 결과를 입증하지도 않는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는 매우 도전적이고 심지어 문제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문화변용 스트레스의 증가로 말미암아 불확실성, 불안, 우울 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Berry, 2006a; berry, kim, Minde & Mok, 1987). 이러한 문제적 측면의 핵심에는 문화적응 과정에 개입된 개인의 건강과 안정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은 베리(Berry, 1970)가 도입했고, 간문화적 생활의 도전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반응으로 정의되었다. 이 개념은 더 널리 사용되던 문화 충격 개념의 대안으로 제안되었다(Oberg, 1960; Ward, bochner & Furnham, 2001). 문화 충격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은 충격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용어여서 문화접촉에서 어려움만 초래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스트

레스 용어는 사람들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다양한 대처 전략에 참여하면서 결국 여러 형태의 적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의 연구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Lazarus, 1977; Lazarus & Folkman, 1984 참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생활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매우 부정적인 것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Berry, 2006a). 따라서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응 접촉 경험은 이로울 수도 있고 또한 생활의 기회를 해칠 수도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의 원천은 하나의 문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 작용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어려움의 근거가 단 하나의 문화 안에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4.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응 전략에서 비지배적인 종족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지 않거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와 일상적인 상호 작용을 추구할 때, 동화 전략이 정해진다.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원래 문화를 유지하는 데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대안으로 분리가 정해진다. 자신의 원래 문화를 유지하고 또한 다른 집단과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데 관심이 있을 때에는 통합이 선택된다. 이 경우에는 일정 정도 유지되는 문화 보존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은 종족문화 집단의 일원으로서 더 넓은 사회의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유지의 가능성이나 관심이 거의 없고 다른 문화와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별로 없을 때는 주변화가 정해진다.

물론 비지배적 집단과 그 집단의 일원은 간문화적 관계와 문화변용에 어떻게 개입할지를 선택하는 데 항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 집단이 가하는 제약은 특정 종류의 관계를 강제할 수도 있고 또는 비지배적 집단이나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것은 통합의 경우에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지배적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개방되어 있고 포용적일 때, 비지배적 집단은 통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Berry, 1980a). 따라서 통합이 달성되려면 상호 적응이 필수적이고, 거기에는 지배적 집단과 비지배적 집단이 모두 더 넓은 같은 사회에서 문화적 공동체로 살아갈 모든 집단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전략에는 비지배적 집단이 더 넓은 사회의 기본적인 법과 규범을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기본틀 내에서 자기 집단의 가치와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에 대한 대응으로 지배적 집단은 다원적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모든 집단의 필요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다

록 국가의 제도를 정비할 준비를 해야한다.

특정한 심리적 전제 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비지배적 집단과 개인은 통합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Berry & Kalin, 1995). 이러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광범위한 수용, 비교적 낮은 수준의 편견, 모든 종족문화 집단 간의 긍정적인 상호 태도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대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일체감이나 애착심, 게다가 종족문화 집단의 다른 일원이 집단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바람을 공유할 때에만 통합은 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전략이 '집단주의적'인 반면에 동화는 한층 '개인주의적'이다(Lalonde & Cameron, 1993; Moghaddam, 1988). 이러한 전략이 별도의 척도를 활용해서 평가될 때, 각 전략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는 개별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예컨대 통합과 분리에 대한 정향은 모두 논리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전략은 모두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의 유지에 대한 선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더 큰 사회의 일원이 가지는 문화적응 전망(acculturation expectations, Berry, 2003)으로 언급되어왔다. 이러한 전망은 비지배적 집단과 개인이 문화적응을 해야한다는 것을 지배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정책에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전망에는 더 큰 사회의 지배적 일원들이 스스로 어떻게 문화적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포함된다. 이 원 안의 용어들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화가 지배적 집단에 의해 추구될 때 용광로라 한다. 분리가 지배적 집단에 의해 요구되고 강제될 때, 그것이 바로 격리(segregation)다. 주변화가 지배적 집단에 의해 가해질 때는 배제의 형태를 띤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더 큰 사회의 목표이고 이 목표가 일원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때, 통합이 대표적인 상호 적응 전략이고 지금은 다문화주의로 널리 불린다.

문화적응의 원래 정의는 이를 상호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문화적응의 이러한 상호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면 종족문화 집단의 일원과 더 큰 사회의 일원 양측 모두의 문화적응 전략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수행한 연구(Berry & Kalin, 1995; Berry, Kalin & Taylor, 1977)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다문화 이념이라는 척도를 사용해왔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통합을 지지하는 항목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세 가지 전략을 지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이래로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는 약 65퍼센트에서 약 70퍼센트로 상승했다(Berry, 2012a).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문화적응 전략의 개념화는 최근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예컨대 부어히스와 동료들은 '쌍방향 문화변용 모델'을 사용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해 접촉하는 집단 모두의 태도를 조사했다. 그들은 이러한 선호에서 개인차를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지배적 집단과 지배적 집단의 차이였다. 접촉하는 집단이 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되는 생활의 영역

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선호되는 문화적응 전략이 생활의 어떤 측면을 분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일의 영역에서는 동화가 종종 더 많이 수용되지만 사회관계·음식·의복의 영역에서는 통합이 선호되고, 가족생활 및 공동체 생활과 관련해서는 분리가 선호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4학년 2학기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할 것이다.

2. 연구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국제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인해 국내 외국인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17). 이에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우수한 해외 인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제화에 발맞춰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김경호, 2013).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은 대학생들이 직접적인 해외경험이 아닌 국내 대학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접하며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제공되는 기숙사, 장학금 등으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김현성, 2015; Harrison & Peacock, 2010). 또한 국내 대학 내에서의 차별과 편견풍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학업지속 여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백성희, 2016; Nora & Cabrera, 1996). 국내 대학의 차별적 분위기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고유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주류문화권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문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언어 학습과 학업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인종 차별, 사회적

지지의 결여 또는 결핍, 향수병, 소외감, 상실감,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주동범, 김향화, 2013;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Dao et al., 2007; Nilson, Butler, Shouse, & Joshi, 2008; Torres, Driscoll, & Voell, 2012; Tummala-Narra, Alegria, & Chen, 2012). 이와 같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신체적·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을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하는데(Berry, Kim, Minde, & Mok, 1987),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며 학업을 하는 과정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Poyrazli, Kavanaugh, Baker, & Al-Timimi, 2004). 이에 Sandhu와 Asrabadi(1994)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하위요인으로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두려움, 죄책감,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체성 발달과 새로운 환경 및 학업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힘든 대학시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Dao et al., 2007; McCarthy et al., 2006).

앞서 기술한 것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일상생활과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중 학업도 이어나가야 하지만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적 부담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며 차별 및 적대감을 지각한다(Yeh & Inose, 2003). 즉,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향수병, 두려움 등과 같이 그들의 내적 자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차별, 적대감과 같이 그들이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이 발생할 때 그들은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Wei et al., 2007).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하게 할 수 있다(김경숙, 김민희, 2014; Leong, Park, & Kalibatseva, 2013; Roche & Kuperminc, 2012; Tummala-Narra et al., 2012).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Hunt & Eisenberg, 2010),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우울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Ying & Han, 2006).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내 상담센터 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모, 2008; Nilsson, Berkel, Flores, & Lucas, 2004).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우울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Crockett, Iturbide, Torres Stone, McGinley, Raffaelli, & Carlo, 2007). 이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송원영, 리난, 2006; 장혁심,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한 결과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를 이안나와 임성문(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할 예정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인 지각된 차별감(문항 예: 나는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다르게 취급된다), 향수병(문항 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지각된 적대감(문항 예: 이곳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냉소적이다), 두려움(문항 예: 나는 이곳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위축감을 느낀다), 문화충격(문항 예: 이곳에 온 이후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에게 생겼다), 죄책감(문항 예: 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기타(문항 예: 이곳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비언어적으로 드러낸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Sandu와 Asrabadi(1994)는 전체 척도의 총합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점수범위는 30점~180점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우울 척도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우울 척도는 총 20문항(문항 예: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0=전혀~3=거의 대부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점~60점으로, 우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4학년 2학기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될 예정이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 문항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 4학년 2학기 과정 중 취업비자발급 예정자와 취업비자발급 미예정자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비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예상 연구결과

예상 분석결과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Gil과 Vega(1996)의 연구에서 새로운 주류문화에서의 거주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처음 2년 거주기간 동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거주기간이 3년을 지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우울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절반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자신의 모국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문화적응 과정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은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는데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04; Wei et al., 2010; Wei et al., 2012; Ying & Han,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주류문화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중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이들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학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평생지도교수와 같은 제도를 두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이인영, 2011). 일찍이 다양한 문화권의 개인들로 구성된 북미와 유럽과 비교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은편이다(여성가족부,

2015). 아직까지 국내 한국인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덜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지식 및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심어주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문화와 대학문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취업비자발급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취업비자발급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행한 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한국 정착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인 취업비자발급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취업비자발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한국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내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울이다(이재모, 2008).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의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업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내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내 내국인 대학생을 위한 타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타문화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타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및 경기도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국내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의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유럽 출신 유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는데, 미국문화가 아시아문화보다 유럽문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럽 출신 유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다(Abe, Talbot, & Geelhoed,

1998; Poyrazli et al., 2004). 이에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은 그들의 주류문화와 비슷한 한국문화에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북미와 남미 출신 외국인 유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는 타인종, 특히 동남아시아인과 흑인에 대하여 차별적 태도를 지닌다(노경란, 방희정, 2008). 인종에 따른 내국인의 상반된 태도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로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과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을 인식하고 내국인의 다문화 교육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도혜, & 최희정. (2021). 지방대학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결정과 주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11(4), 79-106.
- 김도혜. (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2), 25-52.
- 김선주, & 권오영. (2020). An Analysis of Innovation in Education Policie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The Cases of Finland and Denmark. *비교교육연구*, 30(5), 29-54.
- 김세경. (2018). 외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인간관계의 매개효과 및 체류기간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2(2), 127-149.
- 김지훈, & 김정호. (2013).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관련된 유발변인의 영향력 분석: 심리상태와 가족관련 변인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4), 246-272.
- 노경란, &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 박순희. (2019).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융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5), 351-357.
- 백성희.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8, 67-100.
- 유지형, 이주희, & 박순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 이안나, & 박경아.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9.
- 이예지. (2021). 유학 후 외국인의 국내 취업 전략 연구: 시간제 불법 취업과 가족재생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구 문화교류연구)*, 10(2), 43-85.
- 이재모. (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 임선일. (2010). 에스니시티 (ethnicity) 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연구. *산업노동 연구*, 16(2), 381-422.
- 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 김현성. (2015). 캠퍼스 국제화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1), 243-270.
- Abe, J., Talbot, D. M., Gellhoed, R., & Geelhoed, R. J. (1998). Effects of a peer program on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 539-547.
- Alberts, H. C., & Hazen, H. D. (2005). "There are always two voices...": International students' intention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43, 131-154.
-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7(3), 301.
- Berry, J. W. (1990).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 general framework.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15–631.
- Dao, T. K., Lee, D., & Chang, H. L. (2007). Acculturation level, perceived English fluency, perceived social support level, and depression among 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1(2).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 Gil, A. G., Wagner, E. F., & Vega, W. A. (2000). Acculturation, familism, and alcohol use among Latino adolescent males: Longitudinal rel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43–458.
-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4), 337–350.
- Lalonde, R. N., & Cameron, J. E. (1993). An intergroup perspective on immigrant acculturation with a focus on collective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1), 57–74.
- Lasry, J. C. (1977).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and immigrant adaptation. *Social psychiatry*, 12(2), 49–55.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udmin, F. (2009). Constructs, measurements and model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2), 106–123.
- Thurnwald, R. (1932). The psycholog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4(4), 557–569.
- Ward, C., Leong, C. H., & Kennedy, A. (1998, April). Self construals,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Australasian Social psychologists, Christchurch, New Zealand.
- Ward, C. (2001). The A, B, Cs of acculturation.
- Wu, C., & Wilkes, R. (2017). International students' post-graduation migration plans and the search for home. *Geoforum*, 80, 123–132.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 비교

2022120059

석사 왕문비

목 차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 배경	2
제2절 연구 목적과 의의	2
제2장 한국 이민 정책 개요	2
제1절 한국 이민 정책의 역사적 발전	2
제2절 한국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태도	3
제3절 한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	4
제3장 해외 이민 정책 개요	5
제1절 분류	5
제2절 사례 분석	6
제3절 영향 요인	14
제4장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 비교	15
제1절 한국의 이민 정책 특징	16
제2절 효과 비교	16
제3절 성공 요인	17
제5장 이민 정책의 사회 및 경제적 영향	18
제1절 사회 다양성	18
제2절 경제 발전	19
제3절 문화 교류	20
제6장 결론	21
참 고 문 헌	25

요약

본 논문은 한국과 외국의 이민정책을 비교하고 그 정책목표, 제도설계와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이민정책이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 개요, 해외 이민정책 사례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이민정책 방면에서의 다른 나라의 성향과 전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의 이민정책 제정과 개혁을 위해 참고를 제공한다.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현재의 글로벌화 시대에 이민 문제는 각국 정부와 사회가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외국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로서 이민 정책은 학계와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의 발전과 특징, 그리고 외국 이민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이민 현상의 세계적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2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해외의 이민 정책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과 영향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태도와 정책 조치를 이해하고, 해외 이민 정책과 비교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정책이 이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 간 이민 정책 교류와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비교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먼저, 학술 연구, 공식 정책 문서, 국제기구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국의 이민 정책의 역사적 변화, 목표 및 시행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류와 사례를 가진 해외 이민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정책 방향과 조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하고, 이민 정책이 사회, 경제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서론 부분을 통해 독자들은 논문의 배경, 연구 목적과 의의,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후 논문 내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틀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비교 연구를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제2장 한국 이민 정책 개요

2.1 한국 이민 정책의 역사적 발전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적 발전은 국가사회의 변천을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그룹을 포괄하는 단일 노동력 유치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 특히 한전과 한국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노동력 유치는 한국 이민 정책의 핵심이었다. 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 특히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및 기타 국가에서 노동력 이주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한국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변화와 국제사회의 변화는 한국의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은 기술 혁신과 지식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학력 및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 전문가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비자 정책을 개발하는 등 이민 정책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제결혼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다.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 특히 남녀 비율의 불균형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증가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인구 집단을 지원하고 그들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한국도 난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비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 준다.

요컨대, 한국의 이민 정책의 역사적 발전은 다양한 시기에 이주자들의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의 반응을 반영한다. 초기 노동력 유치에서 오늘날의 다각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국가의 번영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 한국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태도

한국의 외국인 이민 정책과 외국인 이민에 대한 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

1. 과거 보수적 태도: 한국 역사에서 특히 한국전쟁과 오랜 정치적 불안정을 겪은 후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고 외국인 이민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다. 이러한 태도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 외부 문화와 영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민은 종종 사회 통합과 지역 문화와의 차이에 직면한다.

2. 경제발전과 문화교류의 영향: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문화교류

의 증가는 외국인 이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국내 인구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외국 문화를 접하고, 여행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국제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점차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 이민을 기꺼이 수용한다.

3.다문화 사회 구축: 한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 건설이 사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이민과 지역 사회의 통합을 촉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적 장벽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며 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외국인 이주민의 권익 존중과 사회참여: 한국의 이민정책은 점차 외국인 이주민의 권익 존중과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사회 서비스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이민자들이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 및 문화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요컨대 한국의 태도 변화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추구,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태도가 강해진 것을 반영한다. 정부와 사회 모두 다문화 사회 건설을 추진하여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변화는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이다.

2.3 한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

한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기간 동안 이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요 관심과 정책 조정을 반영하는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다음은 더 자세한 설명이다.

1. 정책 목표의 변화:

1)초기 경제 발전 중점: 한국의 이민 정책 초기에는 주로 경제 발전과 노동력 공급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정책은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 및 건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건설,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많은 노동력 이민자를 유치했다.

2)다변화 정책목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정책목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최근 정책은 노동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학력 인재 유치, 국제결혼 이민, 난민 등 다양화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에 대한 한국의 점진적인 수요를 반영하며 정책 목표는 단일 경제 목표에서 사회 및 문화 측면을 포함한 여러 목표로 확장된다.

2. 입국, 체류 및 정책 제도 강화:

개선된 비자 정책: 한국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비자 정책을 개선했다. 여기에는 국제 학자, 전문 인력 및 기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비자 시스템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민자의 입국 및 정착 지원: 정부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입국, 거주 및 정착 제도를 강화했다. 입국 절차 개선, 체류권 보호 및 사회 통합 지원은 모두 정책의 일부이다.

3. 사회통합정책의 강화:

1)다문화교육: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언어 과정, 문화 교류 활동 및 문화 이해 교육 제공이 포함된다.

2)사회 서비스 및 지원: 정부는 의료, 주택 및 교육을 포함한 이민자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합쳐져 한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 환경 속에서 다문화 사회와 사회 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열망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조정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를 유치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한국 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하고 국가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제3장 해외 이민 정책 개요

3.1 외국 이민 정책의 분류

외국인 이민 정책은 그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외국 이민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 이민 정책, 가족 재결합 이민 정책,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 학술 및 전문 이민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각 국가는 적절한 이민 인재를 유치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요구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이민 정책을 수립한다.

1.경제 이민 정책: 이 정책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 기술 또는 높은 전문 지식을 가진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민은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의 수요를 채우고 국가의 산업과 혁신에 기여한다.

2.가족 재결합 이민 정책: 이 정책은 이미 국내에 있는 이민자 또는 시민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친족이 포함된다. 가족 상봉 정책은 가족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인도주의적 이민 정책: 이러한 정책은 전쟁, 자연 재해, 정치적 박해 또는 기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포함된다.

4.학술 및 전문 이민 정책: 이러한 정책은 국제 학생, 학자 및 전문가가 국내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도록 장려한다. 유학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을 제공해 이들을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국가는 특정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하나 이상의 유형의 이민 정책을 강조할 수 있다.이러한 정책의 설계 및 구현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외국 이민 정책의 사례

각 나라의 이민 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한 요구 사항, 가치관 및 목표에 따라 제정되므로 특징과 전략이 다르다. 다음은 여러 나라의 이민 정책의 상세한 사례로, 어떻게 각 나라가 고유한 요구 사항과 도전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3.2.1 캐나다:

캐나다는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유명 한다. 이 나라는 이민자 선택에 이민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령, 교육 배경, 언어 능력,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민 자격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선택하고 해당 국가의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또한 캐나다는 가족 통합 정책을 시행하여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이민자가 가족과 단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사회 다양성과 가족 간의 관계를 촉진한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국가의 번영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다음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 대한 보다 풍부한 소개이다.

1.이민자 평가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

이민자 평가 시스템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은 지원자의 연령, 교육 배경, 업무 경험, 언어 능력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점수 시스템을 채택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는 캐나다 노동 시장과 경제 수요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표적 화할 수 있다.2주마다 캐나다는 일정 수의 고득점 지원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전체 프로세스가 매우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다.

2. 지방 지명 계획(Provincial Nominee Programs - PNPs):

캐나다의 지방 지명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방 및 지역이 자체 노동 및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이민 신청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각 성이 지역 경제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지방은 기술

노동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반면 대도시는 국제 학생과 상업 투자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이 다양한 지방 지명 프로그램은 캐나다 전역이 특정 상황에 따라 이민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3.가족 상봉 정책:

캐나다의 가족 상봉 정책은 가족 관계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이 정책은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를 캐나다로 초대하여 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안정을 강화하며 다세대 가족 간의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이민정책의 성공사례: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국제적으로 성공의 모델로 여겨진다. 그것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며 국가가 다문화 및 다국어 커뮤니티를 갖게 한다. 이는 경제적 이민자와 투자자가 캐나다에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또한 국제 사회에 존중을 부여했으며, 특히 난민 문제에 있어서 캐나다는 항상 긍정적인 국제적 역할을 해왔다.

1) 경제 변영: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국가의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캐나다는 고품질의 숙련된 이민자, 특히 경제적 이민자와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인적 자원과 자본을 확보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노동 시장의 기술 격차를 메울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투자 이민은 캐나다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2) 노동 시장: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노동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전념한다. 적응력이 높고 숙련된 이민자를 선택함으로써 정책은 다양한 산업의 기술 부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임금 수준과 고용 기회를 높이고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문화적 풍부함과 사회적 다양성: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문화적 풍부함과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했다. 이민자들은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와 전통을 가져왔고 캐나다 사회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했다. 이것은 국내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넓은 문화적 시각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국제적 평판: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국제사회에 국가에 대한 존중을 부여했다. 캐나다는 국제무대에서 난민 정착과 국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고 국가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얻은 포용성과 인권 보호 정책으로 유명하다.

5) 사회 통합: 이민 정책은 또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더 잘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언어 교육, 직업 지도 및 사회적 적응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

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자신의 직업과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 성장, 노동 시장 수요 및 국제적 명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다양성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했다. 이 성공 사례는 다른 나라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다양하고 유연하며 성공적인 시스템이며 국가의 사회적 다양성, 경제 성장 및 글로벌 평판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정책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번영을 촉진하는 통합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3.2.2 호주:

호주의 이민 정책은 주로 기술 이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직업 목록과 기술 평가를 통해 이민자를 선택한다. 호주의 정책은 전 세계에서 전문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원자들은 영주권 및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호주 이민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국가의 번영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다음은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호주의 이민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이다.

1.기술 이민 및 기술 평가:

호주 이민 정책의 핵심은 기술 이민 및 기술 평가이다.이 정책은 기술과 직업 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는 지원자를 다양한 직업 범주로 분류하고 교육 배경, 직업 경험 및 언어 능력에 따라 자격을 평가한다. 채점 시스템은 어떤 지원자가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정책은 호주가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 이민자를 유치하도록 보장한다.

2.가족 상봉 정책:

호주는 가족 상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나라의 가족 상봉 정책은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은 친족을 호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가족과 함께 호주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더 잘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난민 및 인도주의적 프로그램:

호주는 또한 전쟁, 박해 및 자연 재해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

과 피해자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나라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망명을 제공하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호주의 난민과 인도주의적 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경 통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망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

호주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계승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호주 사회에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은 호주로 하여금 다양한 배경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또한 호주의 케이터링, 문화 축제 및 지역 사회 활동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가 다양한 문화 기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지역 및 주 지명 계획:

호주의 모든 주 및 지역에는 자체 지명 계획이 있어 각자의 노동 요구 사항 및 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각 지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각지의 인구 분포와 경제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6. 호주 이민정책의 성공사례

호주의 이민 정책은 국내 번영과 다양성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이민 사례 중 하나이다. 다음은 호주 이민 정책의 보다 자세한 성공 사례이다.

1) 경제 성장과 혁신: 호주의 이민 정책은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와 고학력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기술 이민자와 투자자는 국내 노동 시장의 공백을 메울 뿐만 아니라 국가에 혁신과 경쟁력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민자 그룹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상업용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한다. 이것은 호주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촉진했다.

2) 다문화 사회: 호주의 이민 정책은 사회의 다원성과 문화적 풍요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국가는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며 다국어,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호주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요식업은 다양한 국제 요리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문화 축제와 활동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킨다. 다문화 사회는 또한 서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다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하고, 인종과 문화적 편견을 줄이고,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더 포용하고 존중하도록 장려한다.

3) 이민 사회 통합: 호주의 이민 정책은 새로운 사회에서 이민의 통합을 중시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한다. 이것은 이민자가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지역 사회 간의 연결을 촉진한다. 이민자와 지역 주민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은 사회의 화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문화 축제, 자원봉사 활동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국제 교류 및 협력: 호주의 이민 정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주의 이민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문화 교류, 과학 연구 및 기술 협력의 중요한 다리이며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명성과 지위를 촉진한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호주가 다른 나라의 요구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글로벌 문제의 협력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기술에서 가족 재결합, 투자자 및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하고 유연하며 성공적인 시스템이다. 이 정책은 호주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다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성공적인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요컨대 호주의 이민 정책은 기술에서 가족 재결합, 투자자 및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하고 유연하며 성공적인 시스템이다. 이 정책은 호주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다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성공적인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3.2.3. 독일:

독일은 고기술 전문가 유치를 위해 블루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독일에서의 근로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 허가 및 장기 체류 권을 제공한다. 이로써 독일은 고기술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국가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이민 정책은 국가의 업무 시장과 혁신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급 기술 전문가와 고학력 지원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은 정책의 주요 측면을 포함한 독일 이민 정책의 소개이다.

1. 블루카드 시스템:

독일의 블루카드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과 고학력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주권 제도와 유사하다. 블루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원자는 대학 학위 소지, 직장과 관련된 직업 기술 보유, 해당 업무 계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블루카드 소지자는 독일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과학 기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 기술 전문가 및 연구자가 독일에 오도록 장려한다.

2. 고등 교육 기회:

독일의 이민 정책은 또한 국제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학생은 독일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 일하거나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은 독일의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원을 주입하기 위해 국제 학생들이 오도록 장려한다.

3. 고도의 기술 이민 지원:

독일의 이민 정책은 기술 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언어 교육 및 문화 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민 정책의 목표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되고 국가의 경제와 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가족 상봉 정책:

독일은 이민자의 가족 구성원이 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가족 상봉 정책은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독일에서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영주권 및 국적:

독일은 조건에 부합하는 이민자에게 영주권과 최종 귀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독일의 이민 정책

1) 기술 및 혁신의 추진력: 독일의 이민 정책은 많은 고품질 기술 이민자와 연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러한 이민은 독일의 연구 기관, 대학 및 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했다. 그들은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과학 기술 성과를 상업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독일의 이민 정책은 세계적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끌어들이는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들과 협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다.

2) 노동시장의 메우기: 독일의 이민정책은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웠다. 인구 고령화 문제가 위협받으면서 독일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 이민과 기술 전문가는 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채우고 저기술 이민은 일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것은 독일의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다문화 사회 건설: 독일의 이민 정책은 사회의 다원성과 문화적 풍요를 촉진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독일에 정착하면서 국가는 더욱 다양해지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 공동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독일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요식업은 다양한 국제 요리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고 문화 축제와 활동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킨다.

4) 국제 협력 및 교류 촉진: 독일의 이민 정책도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문화 교류, 과학 연구 및 기술 협력의 중요한 다리이다. 이주민은 독일과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명성과 지위를 촉진시켰다. 그들은 다양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이 국제 비즈니스를 더 잘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의 이민 정책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의 격차를 메우며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국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정책은 고품질의 이민자를 유치하고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성공 사례는 현명한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가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이민 정책은 국가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기술 전문가, 고학력자 및 국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가족 재결합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민자를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일의 성공 사례는 고품질 이민자를 유치하면 국가에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4. 미국:

미국의 이민 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국가의 다양성과 글로벌 매력을 완전히 반영한다.

1.가족 상봉 정책:

미국 가족 상봉 정책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형

제자매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정책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이 미국에서 함께 살도록 장려하며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지원한다.

2.취업 이민:

미국은 다양한 비자 유형을 통해 국제 전문가와 노동력을 유치하여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H-1B 비자는 고용주가 기술 분야의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엔지니어, 과학자 및 IT 전문가와 같은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E B-5 비자는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한다.

3.난민 및 망명 정책:

미국은 정치적, 종교적, 성별 또는 기타 이유로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망명 및 난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망명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약속을 반영한다.

4.다문화와 사회 통합: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다문화 사회의 번영을 장려한다.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다양한 문화, 언어 및 전통을 가져왔다.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문화 교류, 상호 작용 및 상호 이해를 촉진했다.

5.이민 다양성: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다양한 이민 그룹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과 할당량의 비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비자는 매년 영주권 추첨을 통해 할당되어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것은 국가의 다양성과 노동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6.이민 감독 및 안전:

미국도 이민 감독 및 토지 안전을 중시한다. 국경 통제, 비자 검토 및 이민 법 집행은 국가 안보의 핵심 부분이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안보와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7.미국 이민 정책의 성공 사례

- 1) 과학 기술 산업의 기여: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은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

서 전 세계의 많은 전문 및 기술 인력을 유치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이민은 미국 과학 기술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불어넣고 글로벌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많은 실리콘 밸리의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되어 기술 혁신에서 이민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2) 경제성장과 창업: 이민 창업가는 미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많은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일자리 증가와 경제 번영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Elon Musk 및 Peter Thiel 과 같은 이민 기업가들은 테슬라 및 Pay Pal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회사를 설립했다.

3) 다문화 사회의 번영: 이민은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에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문화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고 미국 사회에 새로운 아이디어, 음식, 예술 및 즐거움을 가져 주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에 글로벌 문화 리더십을 부여하고 국제 관광객과 비즈니스를 유치한다.

4) 고등 교육의 추진력: 미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은 많은 국제 학생들을 유치했으며 그들은 미국 대학에 문화적, 학문적 다양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국제 학생의 등록금과 지출은 미국 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5) 국제 협력 및 외교 관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국제 협력 및 외교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한다. 난민 수용과 망명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명성을 높이고 인권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 미국은 또한 이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보건 안보 및 경제 발전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한다.

6) 지역사회 참여 및 시민권: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의 일부이다. 그들은 선거, 지역사회 봉사 및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회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동기를 부여했다. 많은 이민자들이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더욱 강화했다.

미국의 이민 정책 성공 사례는 이민이 국가의 다원성, 혁신성, 경제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다원화된 사회의 힘과 매력을 강조하고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요컨대,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재결합에서 노동 시장 수요, 망명 및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단계, 다양성 및 사려 깊은 시스템이다. 이 정책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며 국가의 사회 다양성, 경제 성장 및 세계적인 평판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민 정책의 성공 사례는 미국의 다원적 사회의 힘과 매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3.3 외국 이민 정책의 영향 요인:

외국인 이민 정책의 수립과 조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은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및 국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영향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다음은 이러한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1.경제적 요인:

1)노동 수요: 국가의 노동 시장 상황은 이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경제 성장이 특정 분야의 노동력 격차를 메워야 하는 경우 관련 기술과 배경을 가진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2)경제 발전: 국가의 경제 상황도 이민 정책의 핵심 고려 사항이다. 부유한 국가는 더 많은 기회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이민자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다.

3)투자 및 기업 수요: 일부 국가는 부유한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이민 경로를 제공하여 외부 자본과 기업가 정신을 유치한다. 이런 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를 자극할 수 있다.

2.사회적 요인:

1)인구 구조: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국가의 사회 복지 및 노동 시장에 압력을 가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젊은 이민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한다.

2)사회통합: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에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언어 교육, 문화 적응 및 사회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3.정치적 요인:

1)국가 안보: 이민 정책은 보안 위험이 도입되지 않도록 국가의 보안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경 조사 및 보안 검토가 포함될 수 있다.

2)정치적 안정: 정치적 요인도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비전은 이민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

4.국제적 요인:

1)이민 흐름: 국제 이민 흐름의 추세와 규모는 국가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글로벌 이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2)국제 협력: 국제 협력 및 협정은 국가의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국제 인권 협정에 따라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다룰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최종 정책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의 이민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4장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 비교

4.1 한국의 이민 정책 특징:

한국의 이민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년간의 진화와 발전을 거쳤다. 다음은 한국 이민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1.인재 유치 정책:

한국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국제 인재와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 조치를 취했다.

1)다양한 비자 유형: 한국은 다양한 분야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비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비자 유형에는 취업 비자, 연구 비자, 창업 비자 등이 포함된다.

2)취업 기회 및 지원: 한국은 특히 첨단 기술 및 전문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제 인재에게 매력을 제공한다.

3)편의사항: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주거, 의료 및 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2.한민족 정책:

한국은 한국 혈통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시민으로 귀화 신청을 하도록 장려하는 특별한 이민 정책인 한민족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 혈통을 통해 한국 문화와 사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현지 한국인과 비슷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인도적 지원 정책: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전쟁이나 인도적 어려움, 정치적 박해를 당한 사람들을 주목한다. 그래서 한국은 인도적 지원, 특히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망명, 사회봉사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요컨대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제인재 유치, 한국계 외국인 귀화 장려, 인도적 지원 등에서 다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하며,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이민 정책은 변화하는 상황과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

4.2 해외 이민 정책과 한국 이민 정책 비교:

한국의 이민 정책은 해외의 일부 국가들의 정책과 일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비교이다:

1.정책 목표와 중점:

일부 해외 국가들의 이민 정책은 고기술 인력과 투자자를 유치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한국의 이민 정책은 인재 유치와 혈통 복귀에 중점을 두며, 국가의 인력 자원과 문화적 동일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2.이민 선택 기준:

해외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민 신청자의 기술, 학력 및 언어 능력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한편, 한국의 이민 정책은 한국 혈통과 가족 관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며, 혈연관계가 이민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3.이민 지원과 복지:

일부 해외 국가들은 이민 지원과 복지를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의료 보장, 사회 복지 및 교육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이민 지원 및 복지 체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 차이가 있다.

4.사회 통합과 다문화:

일부 해외 국가들은 사회 통합과 다문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며,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한국도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 구축과 통합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다.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이민 문제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실천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이민 정책의 장점과 개선 방향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대한 참고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4.3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성공 요인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성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 국가의 정책 목표와 이민자 프로파일, 정책 실행과 평가 방식, 사회적 및 경제적 맥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은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1.정책 목표의 명확성:

성공적인 이민 정책은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목표는 이민자 유입의 규모와 특정 이민자 그룹에 대한 우선순위, 사회적 및 경제적 효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2.법적 및 제도적 지원:

효과적인 이민 정책은 강력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이민자의 권리와 의무, 입국 및 체류 절차, 이민자의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3.적절한 정책 실행:

이민 정책은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정책 실행 계획과 그에 따른 자원 할당, 협력과 조정 메커니즘 등이 필요하다.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

4.이민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

성공적인 이민 정책은 이민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어 교육, 직업 훈련, 고용 기회 제공,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지원이 필요한

다. 이민자가 사회적으로 포함되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때 정책의 성과가 최대화된다.

5.협력과 다자간 관계:

이민 정책의 성공은 국내외의 협력과 다자간 관계에도 좌우된다. 다른 국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최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민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6.정책 평가와 조정:

성공적인 이민 정책은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민자 통계,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이민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과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 요인들은 한국과 해외 이민 정책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개발과 이민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에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이민 정책의 사회 및 경제적 영향

이민 정책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자세한 영향을 고려할 때 다음 측면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다.

5.1사회의 다원성과 문화적 풍부성:

1.이민 정책의 시행은 종종 다른 국적, 종교적 신념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가져 주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은 다양한 국제 요리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고 문화 축제와 활동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킨다.

다문화 사회는 서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다른 문화 간의 상호 작용은 사람들의 교차 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종 및 문화적 편견을 줄이며 다른 문화를 더 포용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촉진할 수 있다.

2.사회 통합 및 상호 작용:

1)이민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은 새로운 사회에 이민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교육을 제공한다. 이것은 이민자가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지역 사회 간의 연결을 촉진한다.

2)이민자와 지역 주민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은 사회의 화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문화 축제, 자원봉사 활동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그것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인적 자원 및 노동 시장:

1)이민 정책은 고급 기술과 전문 이민을 도입하여 국내 노동 시장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이러한 이민은 일반적으로 의료, 정보 기술, 공학 및 과학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은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했다.

2)이민자는 또한 저숙련 일자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예를 들어, 건설, 농업 및 요식업과 같은 분야에서 이민자는 노동 집약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또한 이민은 기업에 다양성과 다문화적 시각을 제공한다. 그들은 다양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기업이 국제 비즈니스를 더 잘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민 정책은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를 촉진하고 사회 통합 및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노동 시장에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명한 이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가에 큰 이점을 줄 수 있다.

5.2 경제적 영향:

1.경제 성장:

이민 정책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첫째, 고기술 및 고학력 이민자를 유치하면 국내 노동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러한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입은 국가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들은 과학성과를 상업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하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한다.

2)둘째, 이민 정책은 투자자와 기업가의 유입을 장려했다. 투자자 이민은 일반적으로 국내 투자 프로젝트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 그들의 투자는 신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동시에 기업가 이민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의 출현은 국가 혁신 생태계에 신선한 피를 불어넣고 비즈니스와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다.

2.소비 및 소비 시장:

이민은 또한 국내 소비 시장에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이민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총 소비 수요도 증가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모든 산업에 더 큰 시장 규모를 제공한다. 소매업에서 부동산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는 성

장하는 소비 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민은 자신의 요구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소비 습관을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 음식, 전통 및 상품의 도입을 장려하여 시장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3.혁신과 국제 교류:

1)이민은 혁신과 국제 교류에 필수적인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의 다양성을 국가에 가져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지식과 경험의 융합은 혁신과 창업의 번영을 촉진했다. 이민은 그들의 독특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국가에 가져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다.그들은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차 문화 관점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2)또한, 이민은 국제 협력과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문화 교류, 과학 연구 및 기술 협력의 중요한 다리이며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명성과 지위를 촉진했다.

이민 정책은 국가의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급 이민자와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했다. 이민은 또한 국내 소비 시장을 확장하고 다양한 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이민은 국가에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의 다양성을 불어넣어 사회 진보와 국제 교류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따라서 현명한 이민 정책은 다양한 요인의 균형을 맞출 때 국가에 큰 이점을 줄 수 있다.

5.3 문화 교류에 영향

이민 정책은 문화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문화 교류의 영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다.

1.문화적 다양성의 증대:

이민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가 및 문화 배경의 이민자를 유치한다. 이 다양성의 유입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했다. 이민자들은 다양한 문화 전통, 음식, 예술 및 언어를 가져와 사회를 더 다양화했다. 이러한 다문화의 존재는 사회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 전통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2.문화적 상호작용:

이민과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은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 교류 및 상호 학습을 통해 이민자와 지역 사회 구성원은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이러한 문화적 상호 이해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며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문화융합:

이민과 지역 사회의 문화적 상호 작용은 종종 문화의 통합과 혼합으로 이어진다. 이민은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와 상호 작용하고 통합되어 새로운 문화적 요소와 특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

인 문화 체험을 만들어낸다.

4. 문화 창조와 혁신:

이민은 일반적으로 문화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역 사회에 가져온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적 요소를 지역 사회에 통합하고 새로운 문화적 표현과 사고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혁신은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5. 문화 경제 활동:

이민자의 문화적 특성과 기술은 문화 경제 활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은 현지에서 문화 음식, 전통 예술 또는 수공예품을 홍보하여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을 촉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 교류의 영향을 통해 이민 정책은 보다 다양하고 충실하며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과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6장 결론

6.1 한국과 외국 이민 정책 비교 요약

한국과 외국 이민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인구 고령화, 노동력 수요 증가, 다문화성 증가 등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동의 도전은 국가들이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글로벌 시대에 다국적 이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둘째, 한국과 외국의 이민정책은 정책목표와 집행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사회통합과 문화 적응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이민자와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지향은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일부 외국 국가는 주로 경제 발전과 첨단 기술 이민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고급 기술 이민자를 유치하여 노동 시장의 수요를 채우는 경향이 있다.

또 한국과 외국의 이민정책도 비자 유형, 이민 조건, 사회복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가족 통합 비자 등 다양한 유형의 비자를 제공한다. 일부 외국 국가는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민 조건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요구 사

항이 더 높다.

6.2 미래 이민정책에 대한 전망

미래 이민 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이민정책의 수립과 실행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보다 강력한 이민 관리 및 감독 메커니즘 구축, 이민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 제공이 포함된다.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 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 많은 홍보 활동은 이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사회를 더 포용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일부 외국 국가의 성공적인 이민 정책 경험을 배우고 국가 상황에 따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다.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 안정,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 이민 정책 연구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과 모범 사례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사회 화합과 문화 적응에 힘써야 한다. 여기에는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문화 교류 및 커뮤니티 상호 작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에게 더 나은 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와 커뮤니티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와 사회 조직은 이 목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활동과 문화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다양한 문화의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경험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민 문제와 도전에 함께 대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Alba, R.D. and Nee, V. (2003). *Remaking the American Mainstream: Assimilation and Contemporary Immigr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nna Triandafyllidou. (Ed.). (2009). *Irregular Migration in Europe: Myths and Realities*. Ashgate Publishing.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2021). Die "Wir-Ossi-Wessi"-Debatte. Retrieved from <https://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316540/die-wir-ossi-wessi>

Eddy, M, & Erlanger, S. (1999, October 25). One Europe, 10 Years: Special Report: Germany's East and West Still Hostile States of Mind.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1999/10/25/world/one-europe-10-years-special-report-germany-s-east-west-still-hostile-states-mind.html>

Freeman, Gary.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4), 881-902.

I. Bloemraad, (2006). *Becoming a Citizen: Incorporating Immigrants and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ortes, Alejandro & Min Zhou. (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0(1), 74-96.

Pinkert, C. (2002). *Die Konstruktion des Ostdeutschen: Eine Analyse der medialen Repräsentation von Identität und Alterität in der deutschen Einheit*.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Pates, R. & Schochow, M. (2013). Der 'Ossi': Mikropolitische Studien über einen symbolischen Ausländer. Berlin: Springer.

Pollack, D. (1997). Das Bedürfnis nach sozialer Anerkennung: der Wandel der Akzeptanz von Demokratie und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3, 3-14.

Rommelspacher, B. (1995). Dominanzkultur: Texte zu Fremdheit und Macht. Tübingen: Stauffenburg Verlag.

강현숙, 오경석, 권은, 박세훈, 여승현. (2012)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정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미나.(2019).한국 이민정책의 정치경제학: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원어민 영어교사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vi, 237p.

산업대학원. v, 56 p.

신지현(2010). 한국의 이민 정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아시아 전망, 34(4), 73-98.

이동기 (2016). 독일 통일과 동서독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 - Dominanzkultur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제 30 집 제 2 호.

이정수. (2012). 국내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의 고찰 및 문제점 분석. 명지대학교

홍상민, 성선미 (2014). 대한민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통합. 국제이동연구, 48(3), 852-883.

한국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 문제연구

국제다문화전공

후운용

2023120503

I 서론

II 한국 다문화가족의 배경

III 한국 다문화가족의 주요 국가 조합

1.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2. 한국--중국 국제결혼
3. 한국--일본 국제결혼
4. 한국--필리핀 국제결혼

IV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1. 언어 능력
2. 경제 문제
3. 문화
4. 사회

V 다문화가족의 교육 문제

VI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방법 모색

VII 결론

1. 서론

세계화가 발전함에 따라 교통과 통신은 더욱 단순화되었으며 특히 경제의 발전을 촉진했다. 관광, 무역, 유학 등 주요 방식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교류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이런 영향 아래서 계속 발전하고 약화되는 추세가 없다. 앞으로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한국이 1990년대 이후 다문화 가정사회에 진입한 것은 국가 경제발전 수준과 직결된다. 국제결혼은 인구 이동이 잦아진 탓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농촌 미혼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은 다문화 가정을 양산하고 자녀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을 알기 위해서는 주요 그룹 형태부터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언어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부부, 양가 부모, 자녀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목적은 한국인과 결혼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기본적인 언어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이를 겪을 수 있다. 자녀교육 문제는 더욱 버릴 수 없는 화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확립, 적극적인 미래 계획 수립, 지역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통합하고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이 고려해야 할 국가 건설의 문제이기도 한다.

2. 다문화가족의 배경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법률인 국적법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있다. 「국적법」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 조 내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로 구성된 가족.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대한민국 국적법은 다음의 경우에 출생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님이 모르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으로 나뉩니다. 다문화가정은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지칭하는 개념 있다.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혼혈아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있다.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의 한국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 현지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 여성들부터 이미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생겨났고, 이 젊은

이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일하면서 현지인들과 연애할 확률이 높아져 새로운 국제결혼 단계가 생겼다. 이때쯤이면 우리 국민은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많이 개선되고 습관이 되면서 이런 결혼 패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 남성 청년들이 자신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 동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지역의 주요 방식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 이민자 인구 증가기이지만 아직 젊은 이민 국가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출생치는 OECD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다. 다양한 이유로,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 한국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주한 외국인은 2025년 전체 인구의 8%인 400만 명에 이를 전망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증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며, 경기 부양에 편리하고 잠재적인 치안 위험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 귀찮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 정책을 잘 짜고, 분야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 다문화가족의 주요 국가조합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은 K-Pop 문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한국을 찾는 주요 홍보 방법이 되고 있다. 정착하는 뒤 고향 친척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도 있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의 농촌 이탈을 막기 위해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문화가정을 형성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력에 의해 현지 생활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결혼지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성 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결혼 비중은 8.3% 있는데 국제결혼은 외국인 아내의 수가 외국인 남편보다 많고 베트남인과 중국 조선족 동포가 주요 국제결혼자 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가정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주요 집단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육아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이곳에 머물며 일하다가 소득 전액을 고향 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결혼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 않고,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다. 물론 베트남 여성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국제결혼이 더 잘 되고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더 잘 발전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자신이 잘 모르는 지역으로 공부나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 이러한 기반에 더 많은 어려움이 추가되었다. 베트남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는 주로 현지 주둔 미군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다. 1970년대부터 지역이 확대되어 자국뿐만 아니라 북미, 호주, 유럽에서도 베트남인들의 국제결혼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6년 사회개혁 이후 국제결혼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의 발전도 대중화되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국가적 발전의 이유 외에도 남녀 비율의 문제 있다. 베트남 전쟁의 영향(프랑스, 미국, 중국, 내전)으로 인해 베트남은 성비 격차가 큰 나라 있다. 남성은 적고 여성은 많다는 점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베트남은 인구연령구조가 젊은 나라로 30 세 이하 인구의 60%가 결혼연령을 여성 18 세, 남성 23 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베트남은 현재 국가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혼을 일찍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반면 한국은 남아선호, 가문의 혈통 대물림 사상이 심각한 나라 있다.1980 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젊은 남성들이 짝을 찾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농촌 노령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 결혼은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국제 결혼이라는 형식에 익숙하게 만들었다.그래서 양국의 외교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교통과 통신의 보조로 인적 왕래가 빈번해졌을 때,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주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주하여 한다문화가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 여성들이 대거 이주한 데는 한류가 한몫했

고 예능, TV, 영화, 노래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의 생활상을 알려줬다. 그리고 양국의 무역, 한국의 의류, 화장품, 자동차의 수출,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로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결혼하면 고향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나이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연령이 빠르고 여성은 25세 이전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현지 사회에서 결혼이 어렵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나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젊다. 그래서 한-베 국제결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역시 경제와 연령의 문제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결혼 가정.

중화 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는 여러 분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거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서도 잘 모르고 민간의 상호 정보 파악 정도가 낮다. 소량의 국제결혼도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한중 국제결

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국 무역의 성장은 많은 산업 발전을 이끌었고 그 중한 국제결혼이 있다.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로서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양국 국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은 매우 드물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이런 양상은 급속히 타파됐다.외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관용적으로 변하면서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식, 특히 일본과 한국의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동시에 현대 젊은이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 더 자율적이며 부모의 영향을 덜 받다.현재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국제결혼이 매우 흔한 일이 되었으며, 외국인 전용 작업 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대상 정책과 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다.국제 결혼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고 국제 결혼 분야는 현재 성장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양국의 국제 결혼 발전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양

국 정부가 사전에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 결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중 국제결혼의 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가정

한일 국제결혼은 장점이 많다.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있다.사람들의 일상 생활 습관과 매너도 비슷하다.언어는 다르지만 두 나라 언어의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언어를 배우기가 쉽고 배우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릴 것이다.그래서 한·일 국제결혼은 다른 국제결혼에 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훨씬 적다.

한일 간 국제결혼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이른 시기 있다.많은 한·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한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을 좋은 결혼 상대로 보고 있다.일본 여성의 근면과 경제성, 작은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에서 길러진 온유함과 겸손함 일본 여성의 경우 한류 드라마 노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유학이나 관광을 통해 입국했다.한류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친숙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에서 한국남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한국남성을 우선으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게 된다.한류는 한일 국제결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한일 국제결혼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해방 전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사랑 외에 무엇보다 삶을 위해서였다.이것이 해방 전 가장 보편적인 이유인데, 가정 여건이 좋지 않고 선택할 권리가 적기 때문에 부모의 지휘를 통해 운명과 타협하고 현실 생활을 받아들인다.해방 전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선택한 목적은 비슷하다.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식민지배 시절의 한국 남성으로서 일본인 아내를 얻음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생활도 좀 더 쉬워질 것이다.특히 노동임금 면에서는 다른데 아내가 일본인이면 보통 한국 가정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현대 한·일 국제결혼 접촉은 주로 제 3국에서 이뤄지는데, 한국이나 일본보다 영어권 국가에서 국민 연애 비율이 더 큰 유학생 집단 있다. 어느 나라에서 만나든 연애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마치고 짧은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계속

한 뒤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대한민국 필리핀의 국제결혼 가정

역사적 이유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은 매우 보편적인 일 있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서구 사회의 가치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자료를 참고로 필리핀 여성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필리핀 국제결혼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있다. 주된 이유는 역시 한국의 발전으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해외 노동자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해외 이민자의 출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현지 생활 환경에 익숙하여 이러한 그룹이 더 발전된 곳에서 살고 싶어한다. 한국과 미국은 필리핀 이민의 주요 타깃 국가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필리핀 이민자 인구가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구성돼 있고 역사도 좀더 길기 때문에 한국 필리핀은 국제결혼이 시작단계인데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가 필리핀의 경제사정이 국제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 있다.

필리핀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해외로 일하러 가거나 해외로 직접 이주하여 살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는 발전이 더딘 나라 필리핀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데, 이는 필리핀 고유의 구조적 문제 있다.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고 낙후된 농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 투자가 부족하다.필리핀 스스로 겪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동남아 전역의 불평등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다.필리핀의 빈곤층은 대부분 농촌에 있는데, 이는 정부의 토지 개혁 실패 때문이다. 이는 고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전과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필리핀의 발전이 더 디고 외부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촉진했다.

필리핀과 한국은 1949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필리핀은 고대에 유교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생활양식과 풍습이 한국과 비슷하다.1990년대 들어 한국 기업이 직접 투자하면서 양국 이주자가 늘었다.특히 1997년 경제위기가 끝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 한인

전문학교 외에 현지에서 한인 단체도 결성됐다.또한 한국 도시와 필리핀 도시 간의 교류도 활발하여 우호적인 교류 도시가 많이 생겨났다.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의 국제결혼 발전은 계속 건강하고 안정될 것이다.

4.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국제 결혼은 종종 인종적 편견, 양국의 정치 외교적 영향, 문화적, 음식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세계 각 지역의 교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언어 능력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첫 번째 문제이자 부모가 겪는 첫 번째 문제, 바로 언어 문제 있다. 언어문제도 다문화가정 어려움의 핵심이며, 이 문제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느 한쪽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데

는 언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인간이 언어에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시기는 유아기이며, 유아기에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서툰 한국어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면 한국어 공부가 느려지고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지장을 받게 된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언어 능력의 결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나 독해력이 저하될 수 있다. 처음부터 언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 극복해야 할 핵심 문제 있다.

경제 문제

한국의 사회 상황에 따라 다문화 가정은 농촌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보다 가구 소득이 낮다. 다문화가정에서 언어문제가 1 순위라면 경제 문제는 2 순위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의 저소득층은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자녀들의 교육 정도나 기회에도 영향을 미쳐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외

국민 정착에 대한 정책, 국제결혼 취업 생활에 대한 도움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개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부적응 있다. 한국인 남편이 이민 온 아내의 나라 문화에 관심이 없으면 아내 스스로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부부 간 문화 갈등, 나아가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기 십상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남편뿐만 아니라 사회가 타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포용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다문화 사회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은 문화적 정체성은 다르지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억지로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문화적 차별감이 강화되고 자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보다 학교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기 쉽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교육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더 심각한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농촌, 저소득층, 후진국 이민자와 연결돼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자녀가 사회통합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외로움이 더 강해지고 집단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집단적으로 자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움 중 하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를 배우고 지역 생활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나이와 학벌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받는 것이 현지 적응의 방법은 다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종교 문제, 혹은 한국 전통문화와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이 주를 이루는 나라로 전통 명절이 되면 조상을 그리워하는 제사를 지내지만, 이러한 활동은 이민자의 모국문화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으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하려는 상대방의 마음가짐

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한국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본 경험도 없다. 역사적으로도 주로 중국·일본과 교류했기 때문에 동북아 역외의 문화가 반도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컸다.

이러한 배경에서 극단적 민족주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도가 매우 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국제결혼 증가는 한국의 세계화 발전의 결과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소수민족이고 국가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높지 않다. 세계화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인구 이동이며 다양한 문화 접촉이 증가하고 도전 과제가 많아지며 첫 번째 어려움은 차별성 있다. 다른 가정과의 생활습관에서 차별성이 나타나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어렵게 하고, 교류도 어려워지면 이웃들과 불신이나 오해가 생겨 양측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민은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멀리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고, 취업은 지위가 낮은 일자리에 집중 된다.

고위험, 저소득, 낮은 사회복지는 다문화 가정 일 자리의 특징 있다.

5. 다문화가족의 교육 문제

지금 한국은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부모님 중 한 명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공정한 경쟁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복지에 대한 지출이 많은 국가에서 전통 혼가정과 국제 혼가정은 서로 신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자 가족, 그리고 '국적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자 가족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계 과학 기술 혁명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편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의 외국인이 정착하여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개념이 등장하고 현대 가족 유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을 발전시키는 밑거름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장점은 자녀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법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으로 추정 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연령은 20~30대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가 더 융합되어 새로운 국가의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향상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중퇴 문제를 줄이거나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방법 모색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부적응과 문제해결 방법 모

색한다. 첫 번째 영역은 풍속 축제에서 지역사회의 통합 및 자신감 구축을 위한 방법 탐색 있다. 두 번째 분야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연구한다.

다문화 교육에는 인종, 문화, 언어, 사회 계층, 성별이 포함된다. 그러나 많은 교육자들은 항상 인종에만 집중하고 다른 옵션은 무시하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각 도시의 학교에서 이민자 자녀가 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목표가 교과목의 내용이 되어 있고, 계속 수정하고 있는 중 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계발을 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채택하다.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교사 양성을 강화하고 전문 연구 센터를 구축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 환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일반 학생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식을 함양하다.

다문화 자녀 교육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의식과

다문화 지식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과정을 다 커버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 집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교육 내용 있다.

일부 학생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중언어 학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를 개설하고 지도 범위를 확대하며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언어학습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원활하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강화한다. 부정확한 다문화 교육은 갈등을 낳고 불평등은 영구화 된다. 다문화교육은 무조건적인 한국화 교육도, 외국인만을 위한 교육도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교육이 될 수 없다. 다문화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 쌍방향 다문화 교육해야 한다.

7. 결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13 만 4569 명으로 한국에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지난 1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5만 명 급증했고, 이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직원은 15명 늘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 추세는 고정된 미래라고 강조하다. 이대로 라면 한국은 10년 뒤 이민자가 많이 몰려야 하고, 준비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 있다.

이 글은 다문화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의 부족함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문화 교육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나 민간단체 모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발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국제 결혼은 역시 유학생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다문화교육이 파생되기 때문에 원천부터 관심을 가져야 과학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부모도 미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대학교육에 다문화 수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규 교육을 받아야만 개인의 발전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 다문화 가정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비고: 한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비자(체류자격) 관리, 영주 및 귀화 심사 업무, 국내 체류 외국인 등록 및 동향 관리,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불법 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범죄 단속이나 수사 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신문 [구독](#)

PICK ①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일주일째 찾고 있는 중년 남성 사연 [넷만세]

입력 2023.07.15. 오후 3:41 수정 2023.07.16. 오전 10:19 [기사원문](#)

 이정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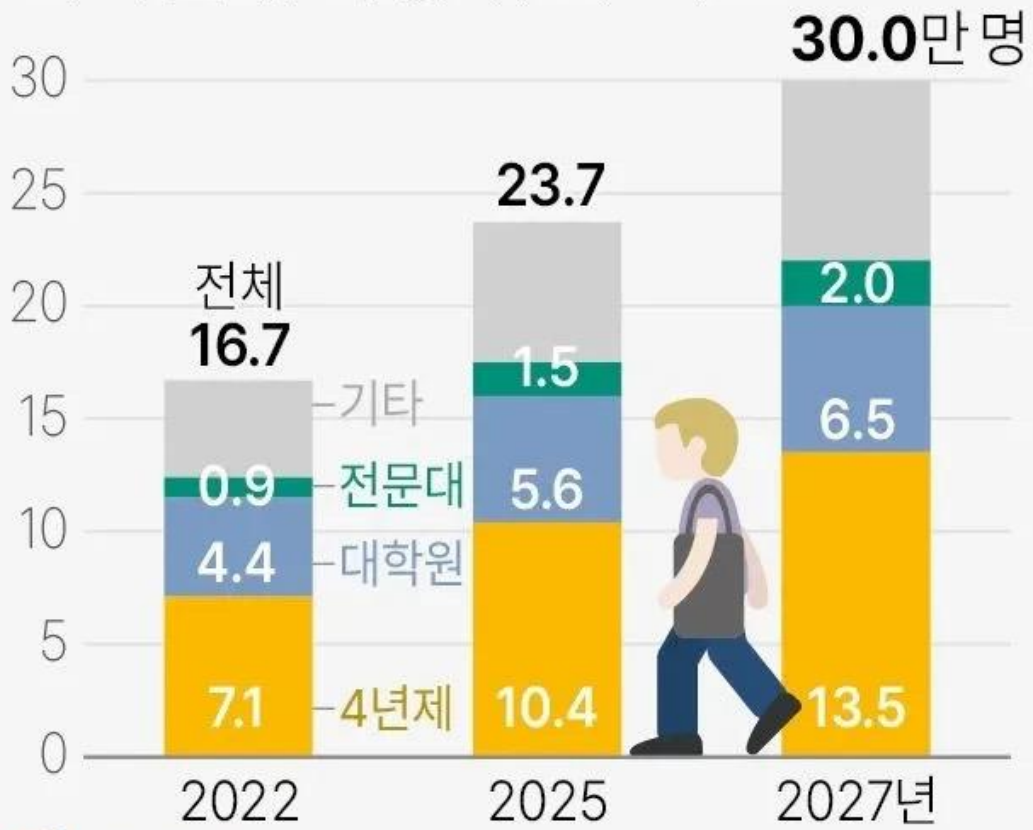
 373  562

틱톡에 베트남어·한국어로 사연 올라와 장인 언급 “금전적 이유면 해결해드린다” 네티즌들, 전형적 ‘사기 결혼’ 추측 많아 “국제결혼 후 이혼 시 국적 회수” 주장도 한국·국제결혼 상대 1위 베트남·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지역별 유학생 수

단위: 명, ()안은비율 %



자료: 교육부

The JoongAng

ChosunBiz

PICK ⓘ

외국인 유학생 2027년까지 30만명 유치...韓에서 취업부터 정착 지원

입력 2023.08.16. 오후 5:17 · 수정 2023.08.16. 오후 5:27

체류 외국인과 관련 조직 직원 수 변화

단위: 명 ● 2007년 ● 2023년 ↗ 증가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The JoongAng

<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자료: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참고 문헌

이민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안전 행정부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김경식)

다문화사회와 역사교육 (곽희정)

《从国民团结的角度分析多文化教育政策》 中国民族
大学

中国民政部

《多文化教育概念分析 以联合国教科文组织相关文
献为中心》 人民教育出版社

Multicultural Education (Arora)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4대 명절을 중심으로-

담당교수: 서 은 숙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칭 상

202212006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중국과 한국의 세시풍속 전통사	3
제1절 세시풍속의 개념	3
제2절 중국 세시풍속의 전통사	5
제3절 한국 세시풍속의 전통사	5
제3장 중국과 한국의 세시풍속 비교	6
제1절 설날과 춘절	6
1) 한국의 설날	6
2) 중국의 춘절	7
제2절 정월대보름과 원소절	8
1) 한국의 정월대보름	8
2) 중국의 원소절	9
3) 정월대보름과 원소절의 비교	10
제3절 단오절	11
1) 한국의 단오절	11
2) 중국의 단오절	12
3) 한국과 중국의 단오절 비교	13
제4절 추석과 중추절	14
1) 한국의 추석	14
2) 중국의 중추절	15
3) 추석과 중추절 비교	16
제4장 결론	16
참고문헌	18

제1장 서론

세시의 어원은 세(歲)는 한 해를, 시(時)는 춘하추동과 열두 달을 뜻하며 세시풍속은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세시풍속은 연중 특정한 날에 주기(週期), 전승(傳承)적으로 행해지는 문화 행위로서 세시풍속에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서민들의 생활양식, 풍습, 우주관, 자연관, 신앙관 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한 나라의 세시풍속을 보면 그 나라의 생활풍속과 문화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세시풍속을 연구하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농경 문화권에 속하며 벼농사 문화권, 동양 문화권,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서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의 세시풍속에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전승된 비슷한 역사적 유래와 명절들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명절은 인류사회 발전의 일정 단계의 산물이며, 생산과 발전은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이다. 전통 명절의 형성 과정은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긴 시간 축적되고 응집되는 과정이다.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복잡하고 엄중했으며, 토템숭배, 천지숭배, 조상숭배 등은 모두 명절 풍습이 낳은 토양이었다. 전통 명절의 형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안정적인 농경사회와 가족 조직이 명절 문화를 정착시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의 발전 과정에서 역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스며들어 특정 시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 미적 취향 및 가치 개념을 보여준다. 전통 명절은 민족의 응집력과 지혜의 구성 부분으로서 전통 명절 의식의 문화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계속 계승되는가는 민족의 가치 및 문화적 구축에 큰 의의가 있다. 명절은 사람들의 시간의 통과이레로, 민속 전통이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통 명절은 대중의 정기적인 정신 조정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민속이 지속적으로 현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명절의 민속 활동을 통해 민족 집단에 응집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족

1) 하진이, “한국과 베트남의 세시풍속에 대한 비교 - 설날, 단오, 추석 중심으로 -”, 2002, P. 17.

심리와 민족 감정의 응집력을 발생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역사적 문화적 유적으로 명절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전통의 관계를 유지한다. 전통 명절은 인간을 중시하고, 가족애를 중시하며, 예의를 중시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우수한 전통 윤리와 예속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²⁾ 본 연구는 한국의 4대 명절인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을 중국의 ‘춘절’, ‘윈소절’, ‘단오절’, ‘중추절’과 각각 비교 분석하여 각 명절이 지닌 문화적 의미와 풍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한국과 중국의 4대 명절 비교를 통하여 양국의 농경 생활 속에 녹아 전해져 오는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측면을 다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2) 李芳.中国传统节日习俗的当代传承——以春节、中秋节为例[J].产业与科技论坛,2015,14(10), P.189

제2장 중국과 한국의 세시풍속 전통사

제1절 세시풍속의 개념

세시는 수천 년의 변화와 발전을 겪으며 시간을 가리키는 개념을 넘어서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문화적인 체계이다. 전통 세시풍속과 명절은 인류의 진보와 사회 문명의 발전된 산물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역할을 한다.

세시는 중국 고대 중요한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선사시대에서 상고시대까지는 민간의 세시관념이 매우 풍성하였던 시기이다. 중국에서 민간의 세시관념에 대한 기원은 민중의 활동과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세시(歲時)라는 문자에 담긴 최초 함의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세(歲)는 갑골문에서도 그 형태가 보이는데 글자의 형상이 돌도끼와 흡사하다. 고문 연구가에 따르면, 세는 상고시대 사용하던 절삭 도구 중 하나라고 한다. 복사(卜辭)에서는 제물을 일컬어 세라 하였는데, 사용도구의 이름과 행위를 결부시켜 일컫는 것이다. 이는 고대의 통상적인 관습이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세라는 글자는 작물을 수확하는 도구를 뜻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농업은 일모작 방식으로 일년에 한번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수확이란 말에는 수확 후 제물을 받쳐 제사를 지내는 행위까지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사는 연말마다 행해졌는데 매년 반복되는 풍년제 활동은 자연 속의 연속된 시간의 개념을 농업주기에 따라 단락 짓는 역할을 하였다. 세(歲)와 비슷한 개념을 지닌 년(年) 역시 농작물과 관련이 있다. 설문에 “年,谷熟也 (년이란 곡이 익은 것이다)”라 기록되었고 다른 기록도 있다. 예컨대 당(唐)대 삼협(三峽)의 무령만(武寧蠻) 지역에서 계속하여 “벼가 자라는 과정에 거의 하여 시간을 정한다.(嘗以稻記歲月)”, 청(淸)대 대만(臺灣) 번민(番民)은 “서미가 익은 시간을 1년으로 정한다.(歲時以黍米熟爲一年)” 등에서 살펴보면, 세와 년의 기원이 농업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와 년의 의미는 농경문화의 발전에 따라 함께 발전한 것이다.³⁾ 정리하자면 세시(歲時)는 두

3) 이진, 「한중 세시명절 풍속사와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속원, 2018, P.13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 해의 순환 주기이며, 두 번째는 한 해의 계절 및 계절과 관련된 절기이다. 전통 중국의 세시관념에서 이는 자연의 시간적 흐름과 그에 대응하며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인문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시는 자연적 속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문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이러한 두 속성은 각기 다른 역사적 시기와 같은 시기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한다.

전통 명절 문화는 전통 명절 풍습과 전통문화의 합일을 말한다. 그 중 전통 명절은 농경시대 농부들의 삶의 정수이며 농부들의 생활주기를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고 다양한 단계의 문화적 정신적 함의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명절을 통해 이 민족 문화의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면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중국 전통 명절 문화는 '축제'의 특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특성을 반영하며 민족 문화의 종합적인 영향의 결정체이다. 모든 문화에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기본 생각의 틀이 있다. 전통문화 시스템에서 균형과 조화는 민족 문화의 핵심이며 동시에 자연의 균형, 사회체계의 균형, 개인 간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시대는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이 부족하고 과학과 문화, 사상이 구속되어 미신적 색채가 짙었다.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면 현실 세계는 날씨가 좋고 곡식이 풍성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긴박하면 재앙이 오고 사회 혼란과 심지어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고대 노동 인민들의 문화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질박한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균형에 대한 끝없는 동경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관에는 자연, 사회, 개인 간의 균형 잡힌 조화가 포함되며, 세 계통의 조화로운 관계는 서로 무관하지 않고 서로 통합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시스템의 균형만이 이상적인 경지의 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진정한 조화를 대표할 수 없으며, 세 가지 시스템이 서로 보완되어야 진정한 균형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4) 朱国强. 文化自信视角下的传统节日文化研究[D].鲁东大学,2022, P,11

제2절 중국 세시풍속의 전통사

한대(漢代)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정치나 경제가 안정되고 과학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래서 우월적인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한대 이르러 주요 명절이 정형화되었는데 제석(除夕), 원단(元旦), 인일(寅日), 원소(元宵), 상사(上巳), 한식(寒食), 단오(端午), 칠석(七夕), 중양(重陽) 등이 있었다. 또 개자추(介子推), 굴원(屈原) 등 인물의 기념일이 원시의 무술과 제사신앙을 대체했다. 따라서 현재의 명절 대부분은 한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에는 특히 유가의 영향으로 명절날에 세배, 동종배조(同宗拜祖), 웃어른에게 인사드리기 등이 생겨나기도 했었다.

한편, 불교는 동한초(東漢初)에 유입,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불교가 중국의 재래사상과 융합되면서 도교의 음양 사상에 영향을 받아 1월 1일(춘절), 3월 3일(청명절), 5월 5일(단오절), 7월 7일(칠석), 9월 9일(중양절, 중천절(中天節)이라고도 함) 등을 중요한 명절로 삼게 되었다. 정월 15일을 상원절(上元節), 7월 15일을 중원절(中元節), 10월 15일을 하원절(下元節)이라고 해서 도교에서는 이를 삼원이라고 부른다. 중원(中原)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명절 문화에 예술적인 요소가 들어왔다. 예를 들면, 기사(騎射: 말타고 활쏘기), 공차기(蹴鞠) 등이 있다. 납팔절(臘八節)에 납팔죽(臘八粥)을 먹는 풍속도 불교와 도교의 융합 시기에 형성되었다.⁵⁾

제3절 한국 세시풍속의 전통사

한국의 세시풍속은 중국 하대(夏代)의 음력 정월을 설로 삼는 역법(曆法)을 채택·계승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여기고, 농경생활을 위주로 하던 우리는 태음력에 의해서 세시풍속을 구성한다. 근대화 물결에 따라 고종(高宗)대에 태양력(太陽曆)이 실시되고 오늘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세시풍속만은 아직도 음력에 따르고 있다. 이는 현대에도 생일이나 명절 등은 모두 음력으로 지내고 있는 사실이 증명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24절기에 근거해 세시풍속을 만들었고, 또한 우리의 생활 의식을 규정하는 의례로 정착되어 왔다. 자연의 미묘한 흐름을 관찰하고 이를 인간의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태양·태음력은 점복 주체의 객관적 인식을 위한 기초 작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태음력에

5)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 4대 명절을 중심으로”, 2014, PP. 5~6

근거하고 있는 세시풍속은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절기는 매년 되풀이되며 농경생활에도 일정한 리듬을 불어넣어 농민들의 활력소가 되었다. 이를테면, 하루는 태양에 의해 움직이고 한 달은 달에 의해 정하며, 일 년은 태양의 계절적인 순환과 달의 영휴(盈虧)에 근거한 12개월이란 절층에 의해 정해졌다. 여기서 달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생각할 때, 등불이 생기기 이전의 달빛의 밝음과 어둠이 농경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⁶⁾

고려 시대의 세시풍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각종 행사를 월별로 나누고 정리하였다. 1월의 원정(元正), 인일(寅日), 상원(上元), 입춘(立春), 2월의 연등회(燃燈會), 3월의 상사(上巳), 한식(寒食), 4월의 초파일(初八日), 5월의 단오(端午), 6월의 유두(流頭, 음력 6월15일), 7월의 칠석(七夕), 백중(百種, 음력 7월15일) 8월의 중추(中秋, 음력 8월15일), 9월의 중구(終曲, 음력 9월9일), 10월의 팔관회(八關會), 11월의 동지(冬至), 12월의 제석(除夕)이 있다. 이 중에서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삼짇날, 단오, 중추, 중구, 팔관회, 동지를 9대 속절이라고 칭했고, 팔관회와 연등회가 고려 시대의 세시풍속 중에서 최고의 의식에 해당되었다.⁷⁾

제3장 중국과 한국의 세시풍속 비교

제1절 설날과 춘절

1) 한국의 설날

설날은 일 년의 처음, 새해 들어 첫날이며, 달에 들어 첫날이고, 날에 있어 첫날이었으니 이를 삼원지일(三元之日)이라 하여 중요시하였다. 음력설의 날짜는 음력1월 1일이다. 지금은 한국이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음력으로 일컬어지는 태음태양력을 사용했다. 설날은 구정(舊正), 정월(正月) 초하루, 음력설로

6) 이희창. (2021). 자연 현상과 農占 문화의 사례 고찰 -한국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PP.455~466.

7)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 4대 명절을 중심으로”, 2014, P. 8

도 불리며 한자어로는 신일(慎日),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 단월(端月), 원일(元日) 등으로 불린다. 8) 설날에는 다양한 풍습들이 있었는데 차례, 세배, 떡독, 설빔(새옷), 덕담, 문안비, 설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귀 쫓기, 청참, 윷놀이, 널뛰기 등이 그것이다. 그중 설날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세배로 원래는 차례가 끝난 뒤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요즘에는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단 아이들이 더 손꼽아 이 날을 기다리기도 한다. 원래는 떡과 과일 같은 간식들을 내오는데 보통이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돈을 주는 걸로 바뀌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는 풍속이 중국의 영향이었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설날에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붉은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서 주는 풍습이 있다. 일본에서도 (오토시다마-)라고 해서 작은 봉투에 용돈을 담아서 주는데 이 때 세배는 하지 않는다. 9)

2) 중국의 춘절

중국의 설날은 춘절(春節)이라고 하며 가장 큰 명절인 음력 정월 초하룻날이다. 중국 춘절은 사람들의 농업 생산 주기를 마스터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역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한기에 풍년을 축하하고 오랜 시간 동안 풍년을 축하하는 습관이 고정된 명절로 정한다. 역대 왕조에서는 설날이라는 말이 춘절은 아니었다. 춘절이라는 단어는 동한의 《后漢書·楊震傳》에서 처음 나왔다. 책에는 "冬无宿雪, 春節未雨, 百僚焦心"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춘절은 입춘(立春)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남북조 때 사람들은 설날로 봄철을 가리켰다.10) 현대에서 말하는 춘절은 고대의 춘절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신정" 또는 "설"이라 하고, "개년" "정정" 등으로도 부른다. 한국의 설날(음력1월1일)과 같다.

8) 하진이 / HA JIN I. 2022. 한국과 베트남의 세시풍속에 대한 비교 - 설날, 단오, 추석 중심으로 - P.22

9) 진평;김진영. "중국과 한국의 설날 문화 비교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2호, 2018, P.118

10)刘晓春. 弘扬优秀传统文化视野下的春节习俗研究[D]. 齐鲁工业大学, 2020. DOI:10.27278/d.cnki.gsdqc.2020.000114:9

설날과 춘절의 비교¹¹⁾

	한국	중국
명칭	설날, 구정(舊正), 원단(元旦), 원일(元日), 세수(歲首), 신일(愼日)	춘절, 세수(歲首), 원단(元旦), 원일(元日), 년절(年節), 신년(新年), 대년(大年), 신세(新歲), 경신세(慶新歲)
기간	정월 1일이고,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 동안 쉰다.	전통 의미에서의 춘절은 12월에 23일부터 시작하고 정월 19일까지 끝난다. 춘절은 법정 공휴일로 7일 쉰다.
음식	떡국, 세주	교자, 옌카오
풍습	제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다. 세배 놀이: 널뛰기(跳板), 윷놀이(投骰遊戲)	제사: 신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다. 세배 복 기원: 선달 그믐날 수세(除夕守歲), 춘련을 붙이기(貼春聯), 폭죽 터뜨리기(燃爆竹)
공동점	한국과 중국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이날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제사와 세배이다.	
차이점	중국의 춘절은 12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정월 19일까지 이어진다. 법정 공휴일로 7일 쉰다. 한국에서 설날은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만 쉰다. 중국에서 세뱃돈을 빨간 색 봉투에 넣고 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돈을 직접 주는 것이다. 한국은 무병장수라는 의미가 있는 떡국을 먹지만 중국은 운수가 좋다는 의미를 가진 교자나 옌카오를 먹는다.	

제2절 정월대보름과 원소절

1) 한국의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은 한국의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명절이다. 대보름은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이날을 명절로 정했다. 한국에서 정월대보름은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은 작은 보름, 15일은 대보름이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상원(上元)’이라고 한다. 상원이란 중원(中元 : 음력 7월 15일, 백중날)과 하원(下元 : 음력 10월 15일)에

11) 조빈 / CAO BIN. “한·중 명절 음식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2019.

대칭이 되는 말로서 이것들은 다 도교적인 명칭이다. 이날은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로 설날만큼 비중이 크다. 최상수(崔常壽)의 《한국의 세시풍속》을 보면, 12개월 동안 세시풍속 행사 총건수는 189건이다. 그 중 정월 한 달이 세배·설빔 등 78건으로서 전체의 거의 절반이 되어, 1년의 세시풍속 중에서 정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월에 행해지는 행사 78건 중에서 대보름날 하루에 관계된 세시풍속 항목은 40여 건으로 정월 전체의 반수를 넘고, 1년 365일에서도 이 하루의 행사가 5분의 1이 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¹²⁾ 정월대보름에 대표 음식은 다섯 가지 곡식, 즉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만드는 오곡밥이다. 일 년 중에 건강하면 풍작의 소원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정월대보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럼이라고 하는 호도, 잣, 밤 등을 소리 나게 깨물어 먹으면 1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오곡밥



2) 중국의 원소절

중국에서는 15일 정월대보름을 원소절(元宵節)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 원소절 저녁은 음력 새해 첫 달의 달이 둥근 밤이다. 이날 밤에 행하는 주요 행사 중의 하나가 바로 등불을 장식하여 내거는 것이기에 등절(燈節), 등석(燈夕)이라고도 한다. 이 행사는 당나라(唐)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내려오고 있다. 원(元)은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4986&cid=46670&categoryId=46670>

시작이라는 뜻이고 소(宵)는 밤(夜)이라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첫 번째 밤이라는 의미인데 대지에 봄이 회복되는 날 밤이어서 사람들이 축하했다는 것이다. 13) 정리하자면 정월대보름은 첫 보름달이 뜨는 것 자체를 축하한다기보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첫 보름달이 뜰 때까지의 보름 동안 봄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즐기는 설날 축제의 마무리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원소절에 원소를 먹는 것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속이었다. 송나라 때 원소절에 먹는 신기한 음식이 유행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을 처음에는 '부원자(浮元子)'라고 부른 후 '원소'라고 불렀고, 원소는 즉 '탕위안'은 설탕, 장미, 참깨, 팥소, 황계피, 호두알, 견과류, 대추 등을 속재료로 하여 찹쌀가루로 둥글게 싸서 고기와 야채를 먹을 수 있으며 안의 내용물에 따라 맛이 다르다. 만든 원소는 국에 넣어 끓이거나 튀기고 찌고 굽는 등 다양한 요리 방식으로 먹는다.

원소(탕위안)



3) 정월대보름과 원소절의 비교

정월 보름의 양국의 풍속은 많은 면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제액놀이와 아이들이 행하는 놀이, 또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여자들의 놀이 등등 보름날의 풍속은 다양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신께 제사 지내는 성격에서 관등(觀燈)의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다. 한국의 정월 대보름이 현재까지 남아있

13)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 4대 명절을 중심으로”, 2014, PP. 28~29.

는 이유는 바로 놀이에 있다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달의 의미는 특별하다. 고대에는 중국 사람은 별을 보고 농사짓고 한국 사람은 달을 보고 농사짓는다고 한다. 달은 풍요로움의 상징이면서, 地母神으로서 출산과 함께 달, 여신, 대지로 표상된다. 그래서 이 날은 건강과 함께 풍농을 기원하는 모습을 자주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달은 團圓의 의미로 가족들의 모임을 기원하며 달에게 풍요를 바라는 모습은 한국과 동일하지만 한국에 비해 저조하다.

중국의 경우, 除呂之亂, 神鳥說,은 모두 풍요를 기원하는 성격이 없다. 또한, 풍속을 살펴보다도, 한국은 除厄의 성격인 제웅 뜨기, 나무 조롱박, 거리 흙을 집안에 묻기, 연 놓아 버리기, 안택 등등이 있고, 또 건강을 기원하는 귀밝이술, 부스럼 깨기, 잠곡밥 먹기 등이 있으며, 풍요를 예측하는 춤줄 다리기, 편 싸움, 나무 그림자 점치기 햇불 싸움과 줄 다리기 등의 다양한 성격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 풍요를 예측하거나, 기원하는 등의 성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달을 보고 복을 기원하였지만, 현재는 관등(觀燈)으로 대체되고 있다. 14)

제3절 단오절

1) 한국의 단오절

한국은 단오절을 천중가절(天中佳節)이라고 불렀다. 단오절은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중오절(重五節) 및 단양(端陽) 등 많은 별칭이 있다. 이런 다양한 명칭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단오절은 한국말로 ‘수릿날’, ‘수의일(戌衣日)’ 또는 ‘수릿날(水瀨日)’로 불리었다. 수릿날이란 처음 고려가요 「동동(動動)」에 등장한다. 여기서 ‘수리’라는 말은 ‘고(高), 상(上), 신(神)’등을 의미하는 한국의 고유어로,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신을 모시는 날을 말한다. 또한 조선시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단오날을 수릿날(水瀨日)이라고 한다. 15)

14) 김지영.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 : 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P.68

15) 이해. "한·중 4대 명절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교재 구성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

절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윗부분 중국 단오절의 의미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다. 한국의 경우 떡 종류에 쑥떡이 있다. 쑥은 한국의 민간요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초의 하나였다. 단군신화에 곰이 쑥을 먹고 환웅의 아내가 되어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쑥을 식용한 역사는 유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쑥을 단순한 식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액을 물리치는 신성한 식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농촌에서 단옷날 이른 아침에 쑥을 뜯어다가 세워두는 풍속도 같은 맥락이다.¹⁶⁾

2) 중국의 단오절

중국의 단오절은 단양절(端陽節), 용선절(龍舟節), 중오절(重五節), 천중절(天中節) 등으로도 불리며, 날짜는 매년 음력 5월 5일이다.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이 5월 5일 멍라강(汨羅江)에서 자결하였다고 전해지며, 후손들도 단오절을 굴원(屈原)을 기념의 명절로 정했다. 단오절은 역사발전과 진화에 있어 다양한 민속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의 지역문화에 따라 풍습의 내용이나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다. 단오 풍습은 주로 용선 캐기, 용 제사, 약초 캐기, 쑥 매달기, 쫄즈를 먹기이다. 쫄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조상들의 신령한 제사에 바치는 공물로 사용되었다. 북쪽에 전래된 후 기장을 사용하여 쫄즈를 만들고 이를 '각기장'이라고 한다. 지역마다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쫄즈는 남북의 풍미를 형성하고 있으며 맛의 관점에서 쫄즈는 짠 쫄과 단 쫄의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단오에 쫄즈를 먹는 풍습은 수천 년 동안 중국에서 성행하여, 이미 민족의 영향이 가장 크고 적용 범위가 넓은 민간 음식 풍습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학원, 2018.

16) 최나. "한·중 단오 풍속의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쫑즈



3) 한국과 중국의 단오절 비교

양국의 유래와 어원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고이 날'이라는 의미의 고유의 언어인 수릿날이 있으며, 그리고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端)은 초(初)와 같은 뜻이고, 오(五wǔ)와 오(午wǔ)는 동음(同音)이라서 단오(端午)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과 같은 연유이다. 또, 중국에서는 당태종(唐太宗)의 생일이 태음력 8월 5일이기 때문에 오(五)를 오(午)로 고쳤다는 설명도 있고, 5월 5일이라하여, 중오(重五)라고 부른다. 양기가 왕성한 날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이날의 특이한 점은 5월 5일은 악일악월(惡日惡月)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이 날은 「男害父 女害母」한다하여 창포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악운이나 사고를 예방하였고, 또한 중국에서의 5월은 습진 날씨로 인해 병이 발생한다 하여 익모초나 창포나 약쑥 등으로 액막이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가, 부적을 써서 옥추단을 금박해서 허리에 차고 다녔고, 중국의 경우, 문에 창포와 쑥을 걸어놓거나, 오색실을 손목에 걸기도 하고, 중규신을 거는 등의 풍속을 통해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있다. 여기서 양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액막이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행동이 중국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그네뛰기는 그네를 뛰면서 벌레를 가까이 못하게 함에 있고, 씨름의 경우 남자들만의 놀이로, 씨름경기는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체육 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전신운동이다. 반면, 중국에는 풀을 밟기는 있었지만, 한국과 같은 운동경기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용선 경기를 함으로써 굴원을 애도하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명

절 음식으로는 한국에서는 약재를 함께 넣어 여름의 갈증을 해소하는 제호탕이 있고, 그 외에도 도행병이나 계절 과일인 앵두로 만든 앵두편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 통반(筒飯), 각서(角黍) 등의 떡을 먹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종자(粽子)를 먹었다. 또한 액막이 용인 옹황주를 이 날에 마시기도 했다. 17)

제4절 추석과 중추절

1) 한국의 추석

매년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다. 또한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국은 추석의 세시풍속이 매우 풍부하여 추석 당일에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나 제사를 지내며 올해도 풍년을 기원한다. 추석의 대표 음식은 송편과 토란국 등의 음식이 있다. 송편을 찌는 과정에서 증편 틀에 솔잎을 한 겹 넣어 찜통에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름에서 붙여졌기 때문이다. 송편 속의 종류는 참깨, 팔고물, 밤, 호두, 땅콩 등 집마다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발달하였는데, 주로 모양과 크기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보름달은 차차 기울게 되지만 반달은 점점 보름달이 되기 위해 커가는 달로 집안이 흥하길 기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8)

한국에서 추석은 한가위 또는 ‘가배(嘉俳)·가위’라고도 한다. 이때는 농경민족인 조상들에 있어 봄에서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의 계절이 되었고 1년 중 가장 큰 만월 날을 맞이하니 즐겁고 마음이 풍족하다. 추석(秋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석’이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라 할 수 있다. 추석은 시기적으로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시기이며 여러 가지 시절 음식이 있다. 한가위에는 햅쌀로 빚은 송편과

17) 김지영.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 : 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P.87.

18) 양현동. 2021. 한국과 중국의 세시 음식문화 간 차이 분석 및 교육적 방안 탐색. p.20

여러 가지 햇과일 그리고 토란국 등으로 음식들을 장만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차례를 지낸다. 이날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송편이 으뜸이다. 녹두, 깨, 밤, 계핏가루 등을 소로 넣어 둥글게 빚은 한국의 전통 떡이다. 멥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속에 깨나 콩, 팥, 밤 등을 넣어 빚어낸 송편은 추석에 꼭 먹는 음식 중 하나이다. 송편의 모양은 반달을 의미한다. 소를 넣기 전에는 동그란 보름달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소를 넣고 완성하면 반달이 된다. 송편은 보름달과 반달 모양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8월 14일 저녁 밝은 달 아래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만드는데 예쁘게 만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잘못 만들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하여 예쁜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¹⁹⁾ 송편의 유래 역시 가을 수확에 감사하며 풍년을 기념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추석에도 설날과 똑같이 제사를 지내지만 요즘 제사를 안 하는 집도 많아졌다. 하지만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2) 중국의 중추절

중국에서 추석은 ‘중추절(中秋節)’이라고 부른다. 음력 8 월 15 일이 중추절(中秋節)이라고 부르는데 추석날 밤에 밝고 맑은 달빛을 띠는 둥근 만월(滿月)이 단원(團圓: 온 가족이 한데 모이다)과 화목의 상징이라 간주하기 때문에 ‘단원절(團圓節)’이라고도 칭했다. ‘단원절(團圓節)’에 대한 기록은 명나라에서 먼저 나타난다. ‘월석(月夕), 추절(秋節), 8 월절(八月節), 달맞이날(追月節)’이라고도 한다. 중추절은 중국의 전통 가절(傳統佳節)이다. 사적의 기록에 따르면 ‘중추’는 「주예(周禮)」에서 먼저 나타난다. 중추절(中秋節)은 당나라(唐朝) 초기에서 시작되고 송나라(宋朝)에서 성행하고, 명칭시기(明清時期) 춘절과 같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명절 중 하나다.²⁰⁾ 추석은 천상의 숭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상고시대 추석에 달을 제사

19) 하진이 / HA JIN I. (2022). 한국과 베트남의 세시풍속에 대한 비교 - 설날, 단오, 추석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Analysis of seasonal customs of Korea and Vietnam (Focusing on the Seonal, Dano, Chuseok).

20) 조빈 / CAO BIN. (2019). 한·중 명절 음식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지내는 것에서 유래했다. 달 제사는 중국에서 매우 오래된 관습으로 고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고대인들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행사이다. 24절기인 추분기에는 오래된 '제월절'(祭月節)이다. 추석은 전통적인 추분제(秋分祭)의 달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고대인들은 달의 운행이 농업 생산과 계절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달 제사는 중요한 제사가 되었다. 제월(祭月)은 민간 명절의 중요한 예속 중의 하나로, 점차 달맞이·송월 등의 행사로 발전하였다. 대표 음식은 월병이다.

3) 추석과 중추절의 비교

한국 추석의 대표 음식은 송편이다. 추석이 한창 풍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인들은 새로 수확한 음식과 벼를 가공하여 추석의 풍속 음식으로 삼는다. 한국의 추석 음식은 더 계절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추석의 “단원(團圓)“ 문화는 춘절(春節·설날)과 같다. 추석의 대표 음식인 월병(月餅)은 단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송편과 월병(月餅)의 유래를 살펴보면 모두 달을 빚대어 만든 음식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송편은 초기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중국 월병(月餅)은 겉모습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온 모습을 보여주고 제작 방법도 다양하여 외형 장식, 내부에 들어가는 속 재료도 다양하다. 한국 송편과 중국 월병(月餅)의 형태는 달에서 따온 것이지만 한국 송편이 반달 모양인 이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중국 월병(月餅)은 둥근 달 모양의 형태만 유지하되 다양한 월병을 만들고 장식하였다. 즉 한중 두 국가가 세시 음식에 있어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결 론

인류의 진화와 함께 사회 발전도 농경 시대로 접어들어 봄철에 심고 추수할 때 토지는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문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계의 현상과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 하늘에 의지하여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늘, 땅, 신, 조상 및 관련 토템 등에 대한 숭배 정도가 다양하여 점차 농업과 밀접한 일련의 제사 활동이 생겨났다."생산력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작물의 경작과 수확은 계절적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 기후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시하고 봄 심기, 여름 길이, 추수, 겨울 저장 과정에서 자연 계절 변화의 법칙을 인식하여 사시, 이십사절기 학설을 총결산하여 세시명절을 위주로 하는 전통 명절 체계를 형성하였다. 풍년 농한기의 이러한 경축행사를 통해 일월성진(日月星)에 제사를 지내고 오곡의 풍년을 축하하며 내년의 풍조를 기원하였다. 한국이나 중국 전통 명절의 기원은 농경문화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한국의 4대 명절인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중국의 '춘절', '원소절', '단오절', '중추절'과 세시풍속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양국 전통문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같은 명절을 공유하고 있지만, 명절에 행해지는 명절에 먹는 음식, 명절 행사도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세시풍속을 살펴보면 양국 문화의 내면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중국, 한국 모두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족의 구성, 효와 조상숭배에 대한 관념이었다. 중국, 한국 동양 문화권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 양국이 앞으로 공존하기 위해선 공통의 문화적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된 나라로 한국인과 외국인 교류할 때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절 문화는 민족정신을 계승하는 주요 매개체이며 국가의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국가의 문명과 전통을 포괄하며 문화의 정수이다.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며 양국의 많은 명절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양국이 앞으로 공존하기 위해선 공통의 문화적 가치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나 오늘날의 한국처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문화에 놓였을 때,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이진, 「한중 세시명절 풍속사와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속원, 2018.

나. 연구논문

김지영, "韓·中名節文化比較研究 : 語源, 由來, 風俗, 飲食 中心",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당홍, "한·중 세시풍속 비교 연구 : 4대 명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양흔동, "한국과 중국의 세시 음식문화 간 차이 분석 및 교육적 방안 탐색",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이혜, "한·중 4대 명절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교재 구성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8.

이희창, "자연 현상과 農占 문화의 사례 고찰 -한국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021.

조빈, "한·중 명절 음식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진평:김진영, "중국과 한국의 설날 문화 비교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2호, 2018.

최나, "한·중 단오 풍속의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하진이, "한국과 베트남의 세시풍속에 대한 비교 - 설날, 단오, 추석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2022.

2. 외국문헌

刘晓春, "弘扬优秀传统文化视野下的春节习俗研究", 齐鲁工业大学, 2020.

李芳, "中国传统节日习俗的当代传承——以春节、中秋节为例", 产业与科技论坛, 2015, 14(10)

朱国强. "文化自信视角下的传统节日文化研究", 硕士学位论文, 鲁东大学, 2022

3. 기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4986&cid=46670&categoryId=46670>